

# 2018년 4차 이주민분과 회의록

일 시	2018년 4월 17일(화) 12:30 ~ 15:00					
장 소	경기대학교 종합강의동 세미나실(6층)					
참석자(총9명) 9/11 공(1/1) 민(8/10)	<b>성 명</b>	<b>확인</b>	<b>성 명</b>	<b>확인</b>	<b>성 명</b>	<b>확인</b>
	유혜숙(공공분과장)	○	김분홍	○	정재희	X
	김민정(민간분과장)	○	송경순	○	최진혁	X
	이은희(총무)	○	엄현희	○	고정미	○
	김민정	○	이현우	○	손병희	○
김윤진	○	정지영	X	전정준	○	
회의주제 및 안건	<p><b>1. 보고 및 공유</b>                      가. 신규위원 위촉장 전달 및 인사                      나. 전차회의결과</p> <p><b>2. 논의 사항</b>                      가. 2018년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 분과 논의사항 공유                      나. 제4기 수원시지역사회보장계획 이주민(다문화)부문 세부사업 논의                      다. 이주민분과 보장계획 수립 TFT 구성</p> <p><b>3. 기 타</b>                      가. 차기회의 일정</p>					

## 회의 결과

<b>1. 보고 및 공유</b>	<p>가. 신규위원 위촉장 전달 및 인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고정미, 김윤진, 전정준 위원 위촉장 전달 및 인사</li> </ul> <p>나. 전차회의결과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전차회의 결과 이견없음</li> </ul>
<b>2. 논의 사항</b>	<p>가. 2018년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 분과 논의사항 공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워크숍 분과 논의사항 공유</li> <li>- 이주민 관련 문제상황 및 변화, 이슈, 전략·과제 등 설명(손병희 위원)</li> </ul> <p>나. 제4기 수원시지역사회보장계획 이주민(다문화)부문 세부사업 논의</p> <p>○ 세부사업 추가 도출을 위한 브레인 스토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정보부재의 경우 노동자의 경우 다국어가 되는 센터가 각 지역마다 있고 출입국은 콜센터가 있음.</li> <li>- 남편교육 강화 :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한국민의 배우자 교육을 받지 않으면 안 됨. 교육 강화를 하고 있음.</li> <li>- 유형별 외국인 구분 : 외국인 근로자 (중국동포 H2), 외국국적 동포(F4) 수원시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유형에 대한 지원이 전무함.</li> <li>- 안산의 경우 외국국적자를 대상으로 1500만원 정도의 기금을 조례로 마련함. 조례개정 정</li> </ul>

## 회의 결과

- 도는 해보면 좋겠음. (취약계층 노령의 F4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)
- 중국동포 성년들의 문제가 건강문제인데 의료사업 관련 보건소들이 건강검진 기본적으로 하고 있음. 장안구보건소에서 하고 있긴 함. 의료 건강권에 대한 부분을 강화하면 좋겠음.
  - 다문화 관련 제도는 활성화 되어 있음. 국적동포, 외국인근로자, 결혼이민자 등 전략, 과제에 구분이 필요함
  - 건강보험공단 중간 가입자에 대한 지원
  - 보육료 지원, 긴급지원(건강관련) 필요
  - 외국인으로 서비스 이용료를 낼 수 있을 경우 내고, 없는 경우는 지원을 받고 해야 함
  -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월소득으로 하면 안 됨. (근로시간 과중, 시급 등 별도 기준 필요)
  - 자립은 열심히 하고 있음. 복지혜택을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함.
  - 외국국적자의 경우 사회보장 개선에 대한 내용은 디테일하고 많이 나오고 있음. 체류자격 별로 문제 상황이 나왔음. 그것을 실제 지자체 비용으로 실행 가능하냐는 것이 문제임
  - 접근성이 쉬워야 무엇인가 하겠다는 의지가 생길 수 있음. 대상에 맞는 접근이 필요함. 구분 내에서도 그 상황에 맞는 접근이 필요함.
  - 멘토링 사업을 자구책으로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됨
  - 이주민 배경을 세분화해서 대상에 따른 전략을 세분화 하면 전략, 과제를 도출해 내는데 수월해 지지 않을까 생각함.
  - 다문화라는 단어가 또 하나의 계층화 시킬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
  - 외국인 근로자분들은 어차피 잠깐 머물다 갈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있어서 사업은 대부분 결혼이주 여성분들 대상으로 하고 있음
  - 중국동포 경로당 : 팔달구청에서 운영 (대한노인회에서 예산을 투여하는 것임)
  - 중국동포 B형 간염이 가장 많음. 의료권 관련해서 예방접종 지원이 필요함. 포커스를 맞춰서 인식개선을 해줬으면 좋겠음.
  - 전달체계 개편이 필요함.
  - 다문화가족의 경우 소득수준에 따른 복지프로그램 제공 필요
  -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지역아동센터 평가를 할 때 지원을 받는 아동 비율이 평가항목이라 중국동포 아동을 받아 줄 수 없음. 소득기준으로 봐주면 어떨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노후화된 지역에는 수요가 너무 많으니 들어갈 수가 없음 (일반아동 10%도 못 들어왔다가 올해는 20%로 개선됨)  
중국동포 아동이 센터를 이용해야 하나 명분이 없음  
지자체 별도 기준을 늘어서 (ex. 소득신고, 주민세 납부 등) 어린이집,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했으면
  -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다문화 가족 사례관리를 하면 좋겠음 (다문화의 경우 무조건적으로 기관 의뢰함.)
  - 기관의 이야기보다는 당사자 중심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음. 함께 수립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
  - 학교 내에서도 저소득층, 취약계층의 아이들이 이주배경 아이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. 프로그램을 제공해도 별도로 하지는 않음. 사례관리를 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역량강화가 필요함
  - 서비스 중복이나 역차별이 되지 않도록
  - 피부에 와 닿는 것이 한 두개는 있어야 하겠다.  
: 예방접종 개선
  - 함께하는 문화여야지 선주민과 이주민을 분리해서는 안 되겠음
  -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적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아쉽기도 한데 국가적 차원에서 제도나 법이 만들어 지지 않는 이상 지원이 거의 불가한 상황임. 약자인데도 불구하고

## 회의결과

고 개선이 어려움.

- FGI에 근거한 계획 마련과 기본권에 관련된 부분을 추가적으로 넣으면 좋겠음 (TFT 구성해서 마무리 하면 좋겠음)

### ○ 브레인 스토밍 요약

- 결혼이주여성과 외국국적자의 경우 사회보장제도의 지원 범위 및 내용이 현저히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.
-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가족인식개선, 자녀교육, 보육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.  
: 이에 대한 배우자 인식개선 의무교육, 자녀교육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부모교육, 결혼이주여성 정신건강 지원 등을 보다 활성화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.
- 외국국적자의 경우 가장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건강문제, 경제문제, 자녀양육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.  
: 이에, 긴급지원 확대 및 홍보 활성화, 보육료 지원 및 지역아동센터 이용 확대, 건강권 지원 확대(건강검진 및 예방접종), 정신건강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함.
- 위의 세부사업들을 현실화 하기 위해 수원시 조례를 재검토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음.
-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TFT에서 논의하여 1차 정리하기로 함.

### 다. 이주민분과 보장계획 수립 TFT 구성

- 유혜숙, 김민정, 이은희, 이현우, 손영희, 엄현희

## 3. 기 타

### 가. 차기회의 일정

#### ○ 5월 이주민분과 정기회의

- 일 시 : 2018. 5. 17.(목) 10:00
- 장 소 :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 중회의실

#### ○ 이주민분과 보장계획TF 회의

- 일 시 : 2018. 4. 27.(금) 09:30
- 장 소 : 다누리콜센터1577-1366 경기수원센터

회의사진

